# 대구, 자율형 사립고 4개법인 신청

## 자사고 교과부 협의 거쳐 7월 중 발표

〈대구〉 대구시교육청은 9일 자율형사립고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경희교육재단, 계성학원, 영진학원, 협성교육재단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구지역의 인문계사립고교 38개교의 10.5%에 해당된다.

4개 법인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학생선발은 내신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추첨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입학금은 일반계고교의 3배 수준인 49,500원이며, 수업료는 연간 2.5~3배 수준인 350만원에서 42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들 4개 법인의 신청서를 각 부서에 보내 의견을 듣고, 법인과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이번 달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법인과 의견조율과정의 예를 들면 교육과정편성에서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이 미비될 경우 법인에 권고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법인이 반대할 경우는 강제하지 않고 심의과정에서 반영한다.

반면, 조정이 꼭 필요한 학급편제 등은 신청법인을 모두 참석시켜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는 먼저 서류심사를 거치고, 법인 및 학교관계자를 출석시켜 자사고 신청 배경과 당위성,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하도록 배려한다.

그 다음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위원들간의 토의과정을 거쳐 점수는 각 위원이 매기고, 평균점을 산출한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 법인 및 학교의 재정운영, 교육과정, 입학전형 실시, 교원배치 계획 등 5개 평가 영역을 다시 12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심사한 뒤 세부항목당 50점씩 모두 6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항목 및 점수.

| 번호 | 항목 | 세부항목수 | 만점 |
|---|---|---|---|
| 1 |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계획 | 3 | 150 |
| 2 | 학교 재정 운영 계획 | 2 | 100 |
| 3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계획 | 3 | 150 |
| 4 |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 2 | 100 |
| 5 |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 2 | 100 |

위원회평가를 마치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으로 교육감이 대상학교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올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2010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대구 및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고 정원의 20%이상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제도는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는데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자사고는 산·학 겸임교사(교원자격이 없어도 전문성이 인정돼 위촉된 교사)를 정원의 3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고 교장 공모제 등 학교운영 전반에 자율성이 크게 늘어난 학교다.

또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50%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나머지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어, 국민공통 과정을 100% 지켜야 하는 자립형 사립고(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보다 자율성이 크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는 자사고 100개교와 기숙형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가 포함된다.

대구시교육청은 비람직한 자사고 모형을 ① 특색 있는 학교, ② 앞서가는 학교, ③ 조화로운 학교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사고는 입시위주의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의 차별성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색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켜 대구교육 전체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서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예체능 학습이 자유로운 조화로운 학교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 활성화**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교장 송인서)는 지난 9일(화)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한국폴리텍Ⅳ대학(학장 이권현)과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은 학생들의 창의력 및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와 발명품제작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협력 지원, 발명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실시, 발명관련특강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발명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 "학교 환경 쾌적하게…"

## 교실. 화장실 등에 1,570억 투입

〈대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57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간, 학교간 시설격차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교실환경개선 590억여원, 화장실개선 278억여원, 교실냉난방개선 386억여원, 급식실개선 47억여원,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51억여원, 조명전기 개선 115억, 기타 외부환경 개선에 103억여원 등 총 1,570억여원을 투입했으며, 교사 및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실 냉난방개선사업과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사업은 초, 중, 고 전학교를 100%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급식실 및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투자된 시설에 대한 사용자 평가 및 시설실태조사를 통해 시설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반영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역간-학교간 시설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공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함으로써 학력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서비스의 명품화

## 경기도포천교육청 친절교육 실시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6월 5일 포천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교감, 사무원 및 회계직원 106명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포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행정업무자 및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2회 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 기관 및 학교 대민행정에 있어 친절서비스 가치 향상을 통해 기본적인 친절 문화에서 한층 진화된 명품 서비스 창출에 목적을 뒀다.

오정순 교육장은 교육에 앞선 인사말을 통하여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장인인 만큼 더욱더 앞장서서 친절한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해 지는 교육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친절교육을 실시한 주아영 강사(한성디지털대학 겸임교수)는 '친절서비스 브랜드 가치 창출'이란 주제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전략', '전화응대 서비스', '고객과의 대화 에티켓'에 대해 2시간 동안 각종 사례를 통하여 열정적으로 강의했으며,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친절 마인드 향상에 의지를 갖게 됐다.

이날 참석한 모 초등학교 사무원은 "이번 친절교육을 통해서 일상업무에서 할 수 있는 친절한 업무자세 대해 많이 배웠으며, 특히 업무상 많은 전화응대 자세와 화법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송우 기자
ssw@eduyonhap.com

## 대구 서부교육청 담장 허물기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양승일)은 청사 정문에서 남문으로 길게 나있던(70M) 담장을 허물어 시민이 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서구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이번 공사는 2009년 5월, 한 달간 담장 허물기 및 수목식재, 제반 휴식공간조성 사업 등이 이루어져 인근 주민 및 민원인에게 보다 깨끗한 편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지난 6월 9일 전 직원이 참여해 수목에 퇴비 주기, 화단 잡풀 제거, 청사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화단 및 나무 가꾸기 행사'를 시행해 청사 환경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승일 교육장은 "담장 허물기, 제반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울산혜인학교, 구강보건실 개소

울산혜인학교(교장 김수광)는 장애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지난 9일 울산혜인학교 시청각실 및 구강보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울산혜인학교 구강보건실은 이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치과 진료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울산중구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 받아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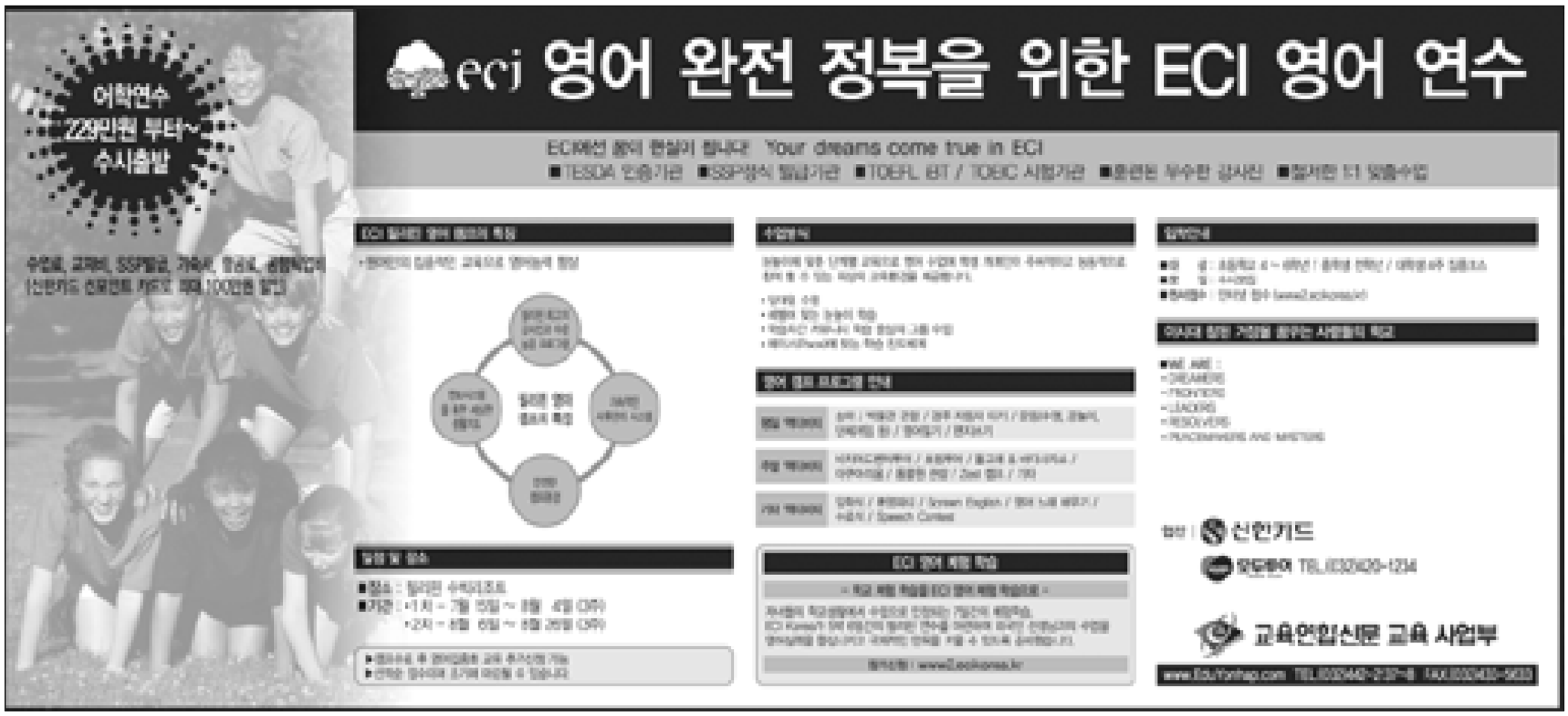
구강보건실에는 치과치료 장비인 유니트 체어를 비롯해 고압멸균 소독기, 광중합기 등 최신 의료장비와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위한 세면대 및 각종 구강건강 게시물이 설치되어 있다.

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는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의료진과 중구보건소 치위생사로 이루어진 관리팀이 방문해 구강검진 등을 실시한다.

## 글로벌리더 양성 학부모 연수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신창식)에서는 오는 17일 관내 이사벨중학교 무궁화관에서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진로지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로교육전문가 조진표 강사의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학생 진로 교육을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번 학부모연수 외에도 지난 3월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학생 진로·상담 교육의 실제'라는 과정의 교사 연수(3.25~3.31. 15시간)를 실시했으며, 관내 23개교 진로탐색반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설계프로그램 '네 미래의 보물지도를 그려라!' 외 6가지의 프로그램을 제공(매달 1,3주 토요일)함으로써 청소년 미래의 보물찾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17일(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가정과 연계한 체계적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명한 진로 지도 10가지 원칙'을 비롯해 사회변화를 읽고 자녀 미래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며 자녀 교육에 중요한 진로 교육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